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통일의 희망

장은기

(운영위원장, 우사연구회 사무국장)

부산에서 펼쳐진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남과 북의 운동선수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한겨레로서 정겨운 만남으로 열광하는 웃음꽃을 피워 그 기쁨이 온 세상 천지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웃으며 이심전심의 한겨레마음을 나누기까지에는 반세기를 겪어온 슬한 애환·곡절이 있었기에 더더욱 반가운 대회였다.

금년 아시아경기대회는 사상 유례없이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참가해서 37억 전체 아시아의 축제가 돼 더없는 경사가 되었다. 44개국의 9,900여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모임을 갖기까지에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운이 돌보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참가한 나라 가운데는 비참한 전란을 겪은 나라, 서로 대치하여 총격전을 벌이는 곳도 있으며, 세계의 초강대국이 억지행패를 자행하면서 괴롭게 시비 걸어 제 뜻 아니게 시련을 겪는 나라도 있어서 그 처해 있는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참가해 함께 어울려 즐기는 그 정신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감사해야 할 일이다.

특히 지난날 잘 알 수 없어서 상상으로 그려보던 허상을 씻어내게 하는 참모습으로 남북이 서로 기쁘게 손에 손을 맞잡았을 때, 한겨레의 진한 감동을 느끼면서 감회가 새로워지는 무상한 세월을 생각한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을 줄 안다.

인지상정으로 공감한 대회참가자들 모두가 하나됨을 축원하는 박수로 그 아름다운 정경을 찬양해 줄 때, 진정 말 못할 감동이 솟구침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만나 기쁨을 나눌 수 있기까지에는 6.15공동선언의 실천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진정 온 겨레가 평온하게 살 길은 통일 성취뿐임을 절실히 깨닫게 해준 대회였다. 잊혀지지 않는 북의 응원단 아가씨들의 밝은 웃음, 그 모습은 겨레의 원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통일달성의 진실한 노력 있어야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한 대도 통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우선 통일을 위한 길을 트고 왕래하려는 그간의 실천의지가 내일을 향한 역사 길을 열어 놓았음을 실감하게 한다.

지난날 생활인의 일상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남과 북의 만남과 왕래가 이루어졌던 사례가 없지 않았지만 그 실상은 나라와 겨레를 위한 통일길이 아니었음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일시의 방편으로 속과 겉이 다른 목적을 이루어내려는 속셈으로 세상 사람을 현혹시키고 오히려 분단을 굳히면서 힘쓰는 실세들이 의도한 통치실력을 발휘하였던 바, 그 시대를 우리는 유신의 긴조(긴급조치) 시대라고 하였다.

그러한 유신의 바탕에 연원하는 인맥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오늘날의 일부 실체들은 깊이 반성하여 '희망의 통일'을 달성하려는 노력에 같이 어울려야 할 시운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더불어 사심 없이 나누어 가지는 마음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어내는 마음, 서로가 정의로운 노력을 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반민족문제를 옹계 해결하지 못한 인연에 기인해서 사회정의를 실종했다. 엄연한 합법활동인 반민특위를 무법이 박살내어 민족정기는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도 탄청부리며 겨레와 나라보다 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도 4.19 후 군대가 정권을 빼앗아 행세하는 왜곡된 세상을 살아온 내력을 깨우치고, 오늘날 대세가 겨레 모두를 살리는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알고서, 내 주장만 내세우고 제 뜻에 맞지 않는다면 역지의 고집을 부리는 습성을 털어내야 한다.

이와 같은 역사의 줄기를 식별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의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남 앞에 드러내 보여주는 참 인물이 아쉬운 때인데도 남을 탓하기만 일삼고 제 허물 감추어 궤변을 능사로 삼는 인물들이 득실거리 참으로 화나고 속 타게 한다. 현재의 위정자나 앞으로 그 책임을 맡겠다고 나선 인물들은 나라와 겨레는 항상 영원하다는 근본 사리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처신해야 마땅하다.

흔히 제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려 하면서 자기 앞사람이 다듬던 삶의 틀을 제 마음대로 새로 시작해 나가는 데서 겨레가 한결같이 살기 바라는 바탕을 어지럽히며, 뒷걸음질치게 하면서도 당치 않게 자화자찬하여 세상 헛되게 하는 사례를 우리는

겪어왔다. 지금도 국민을 얼간이로 아는 것인지 온 겨레 앞에서 국민경선으로 뽑은 대통령 후보를 등지고 새로운 인물 찾아 나서는 명색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인물의 처신을 보면서 이러한 얼굴 두 개 가지고 자신만 알고 민주의 근본을 외면하는 자는 정치에서 퇴출시켜 그 기만의 배신행위에 책임지게 해야 우리 사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누가 정권을 맡느냐 하는 개인의 공명심보다는 온 겨레와 나라가 근본으로 중심 잡은 삶을 이어나가는 자주·민주의 독립된 역사의 삶을 울곧게 지속해갈 수 있게 하느냐를 주목한다면 어느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될 수 없고, 누가 이 사회의 내력 있는 역사의 본분에서 이탈하거나 배신하지 않을까를 그 인물의 살아온 경력과 일상의 언·행·심·사를 통해 살펴보고 판별하는 지혜가 아쉬운 마음 절절하다.

살 만큼 살아온 나이든 사람의 속성이 일시에 바뀔 수 없는 사리인데도 흔히 계층을 타파한 만능인이나 된 것처럼 어제는 쓰레기 치우는 곳으로 오늘은 뒷골목 가난한 서민의 이웃인 양 변신술을 연출하는 배우같이 돌아다니며 뻔뻔스러운 과거를 호도하는 작태는 꼴불견일 뿐이어서 그 속마음이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들은 우리의 통일로 가는 노력도 저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시비하며 당치 않게도 자기가 해야 한다고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나이든 세대는 이승만 집권 시절 6.25전쟁을 겪으면서 위정자들이 겨레를 버리고 달아나면서도 거짓말해서 서울 시민이 앉아서 죽게 했던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서울을 잘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방송인데 거리에는 북의 인민군이 이미 들어와 자리잡아가고 있었다는 기막힌 내력이었다. 뿐만 아니라 저들만 먼저 건너간 한강 다리를 폭파해 피난길 나섰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게 하였던 사실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체험이었다는 말이다.

이승만과 그를 추종한 반민족 인사들은 우리 겨레의 해방·독립보다는 그들의 영달을 노리고 나라를 들어 힘쓰는 외세에 종속시키기에 힘썼는데도 그들이 훌륭한 겨레의 은인이었다고 치켜세우는 측이 행세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비애를 느끼는 감상은 나만이 아닐 줄 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바른 도리로 살아가는 세상은 통일로 성취해야 하는 만큼 이 겨레의 과업을 풀어내기에 우리 모두 힘써야 할 때다.

역사의 통일 교훈

우리는 분단의 원인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분단을 막고자 노력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오늘까지 겨레의 뜻과 달리 분단을 살고 있음을 반성해야 하겠다.

우선 임정의 실상을 살펴보면 해방정국에서 임정이 힘쓸 수 없었던 내력을 알 수 있다. 하나로 뭉쳐 힘쓰는 조직으로 독립투쟁에 나섰어야 할 독립운동 과정에 있었음에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 각기 자기 주장 내세워 분열을 일삼아 임정 자체가 제구실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되어 중국 각지를 떠돌았고, 전쟁말기에 접어들 무렵에서야 강화·재편이 이루지게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억지 이론으로 짜 맞춘 역사를 가르쳐 후세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든 학자들은 허심탄회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방정국에서 백범이 임정의 법통을 내세우기에 전력하였음에도 임정의 존재가 힘쓸 수 없게 된 내력을 분명하게 알 수 없도록 내버려둔 학자들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실력행사 할 수 없었던 임정을 치켜세우고 민족반역자들이 행세하며 단정 수립으로 가는 과정도 일반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알려지게 된 실상도 분단의 역사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사항 가운데 신탁만을 드러내 크게 보도함으로써 온 나라 전 민족을 반탁으로 몰아세워 정신 못 차리게 선동해서 통일의 자주독립정부 건설의 기회를 잃게 작용했던 유력 일간지는 지금도 편파적인 보도에 제 주장만을 소설 쓰듯 크게 써내 겨레의 삶을 질곡의 나락으로 몰아가기에 여념이 없어 보이니 한심하기만 하다.

일생을 나라와 겨레 위해 올곧은 신념의 실천으로 일관했던 인물이 없지 않았으나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명언처럼 세상의 순리를 거스르는 무리가 행세하는 형편에서, 시세에 편승하여 일신의 영달, 출세를 위하여 외세에 기댄 사람이 득세함으로써 종내는 점령군의 목적달성에 앞장서서 활약한 결과로 분단이 고착되었던 역사를 모두 알고 있는 듯하나 실상은 상세한 내력을 잘 알지 못하는 실례를 종종 보게 된다.

정경모는 그의 저서 『찢겨진 산하』에서 김구, 여운형, 장준하가 하늘나라의 구름 위에 앉아 지난날을 생각하며 담론하는 글을 썼다. 그 가운데 백범이 해방정국에서 당시의 현실에 집착한 자기만의 생각대로 반탁운동을 한 결과가 이승만 등을 도와 단정을 수립하게 하였음을 반성하는 대목이 있다. 이는 지은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본

래 백범의 반탁은 통일·자주독립의 정부수립이 목적이었고 이승만은 점령군과 뜻이 맞는 단정수립을 의도하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백범은 속내와는 달리 단정수립을 도와준 결과가 되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일신만을 생각하여 일생을 살았고 그가 의도하는 단정수립을 위하여 못할 것이 없었던 이승만이 미인계까지 활용했다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다. 당시 남북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엔한국위원단의 단장 메논에게 이승만이 하수인으로 모윤숙을 내세워 하룻밤 새에 메논의 마음을 바꾸게 하였다는 사실은 메논이 뒷날 자서전에 “나의 임무수행에서 감정이 이성을 지배했던 유일한 경우였다”는 고백으로도 확인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승만이 심복 임영신을 미국은 물론 유엔에까지 파견하여 교섭 활동을 하게 놀렸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이승만과 갈라선 백범은 정황으로 보아 늦었지만 결국 우사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역사는 미래를 위한 과거의 기술이지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던가는 알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하지만, 강만길 교수는 “역사는 이상의 현실화 과정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교훈을 상기하고서, 사사로운 자기 개인만의 생각으로 잘되는 거래 위한 큰 일에 장애 되지 않도록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대세 이룬 역사에 거스르지 않고, 거래에게 두 번 다시 되풀이하는 과오가 없게 해야 할 일이다. 바른 역사교육으로 자주독립 통일을 끈질기게 달성한 “베트남 투쟁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시사한다.

통일은 평화의 실현

우리에게는 세계에서 유일한 대치상태의 화약고가 있다. 비무장지대라는 말뜻과는 달리 세계의 최첨단 살상무기로 적대하고 있는 중무장지대를 안고 있으면서도 별 무관하게 태평한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이렇게 위태로운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평화롭게 만드는 방도는 오직 통일뿐이니, 서로의 만남으로 어울려 함께 살 사회의 틀을 짜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때임을 알아야 하겠다.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고자 골몰하면서 불연이면 만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어떤 ‘불량국가’에 폭탄을 떨어뜨리고자 노리고 있음은 주지하는 현실이다. 미국만

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만하게 전쟁의 실력으로 세계를 다스리려 하고 있다.

우리는 1994년에 전쟁 직전까지 갔던 아슬아슬했던 상황이 있었음을 알게 된 만큼 그 살기등등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6.15공동선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통일노력이 여간 다행이 아님을 명심해야 하겠다.

마침 서로 뜻 맞아 절단돼 녹슨 철길을 잇고 파괴된 도로를 이어 개설하여, 이 길을 통해서 서로가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고 사회생활이 향상할 수 있는 틀을 짜나가야 할 때다. 이 철길과 도로가 참으로 생명 있는 그 핏줄로 힘차게 고동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모두가 각성한 결단으로 6.15공동선언·통일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사발전의 자주·민주의 통일을 앞당겨 와야 한다. 통일만이 온 겨레가 더불어 같이 사는 평화의 실현임을 명심하여 대동의 정신으로 민족과업 수행에 나서야 할 때임을 모두가 깨우쳐 나서기 바라는 소망 간절하다.

사월혁명회보 제66호(2002.11)